

# 세계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2012. 3)

## 주요 이슈

최근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비교적 나은 수준이며,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의 장기대출프로그램(long-term financing operations, LTRO)이 금융시장을 안정화 시켰고 지난 3개월 간 주식 시장을 활성화 시켰다. 몇몇 부문에서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제 유가 상승, 주요 국가의 재정적자, 신흥 경제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은 더딜 것으로 보인다.

IHS(Information Handling Services)의 Global Insight는 2011년 4/4분기 세계 GDP 성장률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2011년 경제 성장률은 3.0% 미만일 것으로 보인다. 비록 다음 몇 분기 동안 회복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2013년 중반기 전까지는 장기 추세를 뛰어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평균 경제 성장률은 2011년의 3.0%보다 낮은 2.7%로 예상된다. 높은 GDP 대비 부채율과 실업률을 낮춰야 하는 선진국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확실성과 경기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충격, 디플레이션 등에 세계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신흥 경제국의 GDP 성장이 양호한데 비해 대부분의 선진국은 비교적 평범한 수준으로 세계 경제 성장의 분배가 균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사실이다. 경기 후퇴 이후 8분기 동안의 회복기(2009년 2/4분기부터 2011년 1/4분기) 동안 신흥 경제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7.2%였다. 이러한 이중 속도(two-speed)의 경기 확장과 함께 현재의 경기 순환 하에서는 거시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감소하면서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은

\* 본 내용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문 자문과 정보 제공 전문회사인 IHS(Information Handling Services)가 3월 발간한 전망 보고서(World Overview)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우림 연구원(urimcho@krei.re.kr)이 작성함.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국가의 근원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sup>1)</sup>은 비교적 낮거나 안정적이다.

표 1. 세계 GDP 성장률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1/4	2012.2/4	2012.3/4	2012.4/4	2013.1/4
세계	1.6	-2.0	4.3	3.0	2.4	2.7	2.7	3.0	3.3
미국	-0.3	-3.5	3.0	1.7	2.0	2.2	2.2	2.0	2.0
캐나다	0.7	-2.8	3.2	2.5	1.8	2.4	1.9	2.1	2.3
EU	0.2	-4.3	2.0	1.6	0.0	-0.3	-0.3	0.2	0.7
CIS	5.2	-6.8	4.8	4.7	3.7	3.8	3.8	3.9	4.0
중국	9.6	9.2	10.4	9.2	7.8	8.0	8.4	8.5	8.3
일본	-1.1	-5.5	4.5	-0.7	1.4	2.1	0.7	1.4	1.8
한국	2.3	0.3	6.3	3.6	2.7	2.5	2.6	3.2	3.5
아르헨티나	6.8	0.9	9.2	8.9	4.2	3.3	4.6	4.0	5.0
브라질	5.2	-0.3	7.5	2.7	1.8	2.4	3.7	5.0	5.0
멕시코	1.2	-6.2	5.5	3.9	1.5	3.4	2.2	4.8	4.7
중동	5.1	2.1	5.4	5.2	4.3	4.1	3.9	4.0	4.2
아프리카	5.5	2.5	4.7	1.5	3.3	4.2	4.9	5.4	5.4

자료: Global Insight, Comparative World Overview Tables, 13 March 2012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s)은 특히 페르시아 만 지역에서 최근 몇 달간 상승하였다. 이란의 걸프 지역 유조선 통행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미국 및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세계 유가도 상승하였다. 이는 세계 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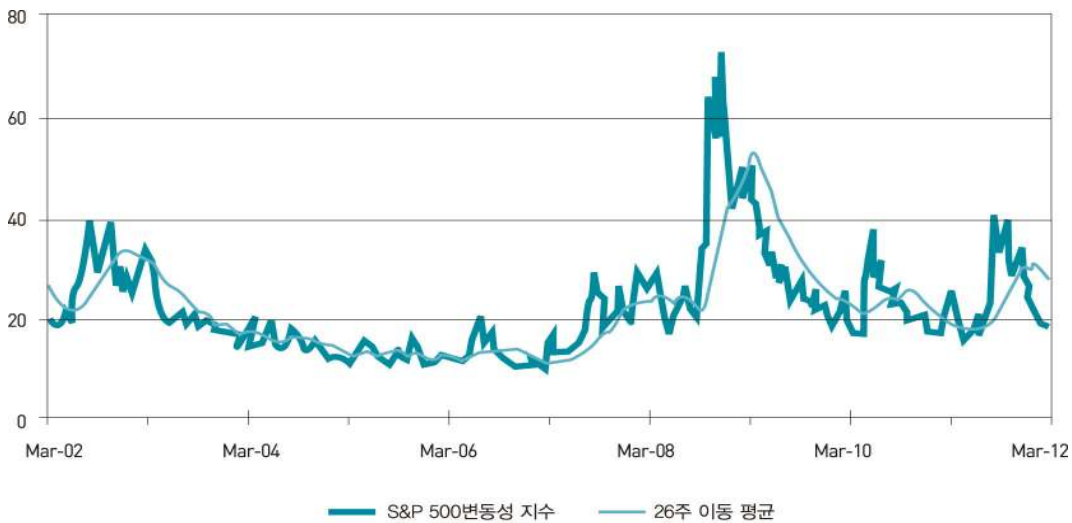
세계 경제에 위협이 될 또 다른 리스크는 바로 많은 부채로 인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많은 선진국의 정부 재정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높은 부채와 재정적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주요국들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중앙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재정을 안정시킬 시간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이들이 아무 대책 없이 있을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금융 시장이 강력한 재정 개혁을 실행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데로 가는 경우에는 정부가 더욱 힘든 상황에서 필요한 개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 근원 인플레이션이란 석유파동·이상기후·제도변화 등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후 산출되는 장기적인 물가상승률로서 핵심물가지수상승률이라고도 함.

지난 11월 양당의 채무 감면 방안을 입법화시키기 위해 2011년 미국 의회에서 특별 위원회(Super Committee)가 구성되었지만 실패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 감면이 2012년 11월의 대선 전까지는 더 이상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거 결과만이 정치적 정체를 해결할 것으로 본다.

현재 부채 문제의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부채가 많은 EU 회원국들이다.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EU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압박이 다른 국가에도 점점 전파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금융 시장으로 부터의 파급 효과로 인해 EU 경제는 이미 취약해진 상황이다. 일부 EU 회원국들의 국가 부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바로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2011년 후반 마지막 수단으로 유럽의 금융 기관들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이 대출을 결심한 것은 아마도 이것이 유럽 경제가 최소한의 성장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 변동성 지수 추세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2012Q1, March 16, 2012

### 2011년 세계 경제는 비교적 좋지 않은 편

다양한 외부충격으로 인해 세계 GDP 성장률이 매우 하락하였다. 먼저 정치적 격변과 자연 재해가 세계 GDP 성장을 방해하였다. 정치적 충격으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인구

증가, 아프리카의 최대 원유 수출국 중 하나인 리비아 등의 정부 불안정 등이 있다. 리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더욱 감소하면서 다른 원유 수출국들의 위험도 증가하였다. 세계 원유 시장에 리비아의 품질 좋은 원유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세계 유가는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업 요소 비용(input costs)이 증가하였다.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원유수입국 가계의 재량 지출(discretionary spending)<sup>2)</sup>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총 국내 수요도 감소하였다. 일본의 지진과 호주(2010년 12월~2011년 1월), 미국(2011년 3월~5월)의 홍수로 인한 수요 감소와 몇몇 부문의 생산 저하도 수급 부족을 가져와 물가를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었다. 또 2011년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의 통화감축 정책도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2011년 상반기 세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2011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3.4%였는데 비해 상반기 평균 성장률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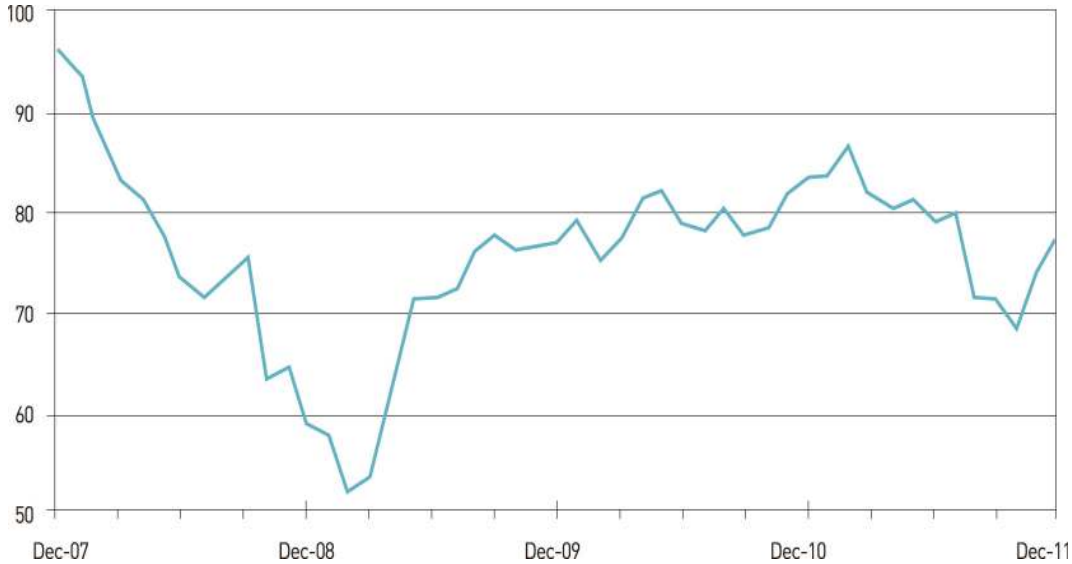
### 2011년 하반기 경제 회복은 기대에 못 미침

2011년 하반기 세계 경제는 몇몇 방해 요소들로 인해 침체되었다. 그러나 원유, 식품 등의 가격이 조정되면서 가계와 금융 부문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 미국, 호주의 자연 재해로 인한 영향도 대부분 사라졌다. 또한 일본, 호주, 미국의 재건 지출(reconstruction spending)과 재해 후 생산 회복이 세계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2011년 5월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7월 말까지 긴장이 계속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주었고 투자자와 가계에 손해를 가져왔다.

2009년 2/4분기 이후 연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불과 3.3%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 회복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 중이다. 경기 후퇴 직후(2009년 2/4분기부터 2010년 2/4분기까지) GDP 성장률은 평균 4.1%로 장기 추세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1년 6개월 후의 평균 GDP 성장률은 2.7%에 불과하였다. 경기 후퇴 후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딘 이유는 주로 선진국 때문이었다. 신흥경제국과 원자재 수출국들의 경제 성장은 상당히 회복되었지만 선진국의 경제성장은 높은 실업률이 완화되지 않는 등 회복이 빠르지 못한 상황이다.

2) 기초 생활비 외의 조정 가능한 지출임.

그림 2. 세계 소비자 신뢰 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2012Q1, March 16, 2012  
 주: GDP 가중치를 적용한 지수로 EU, 일본, 미국, 영국, 호주를 포함.

### 2012년 세계 경제 성장률 2.7% 전망

그러나 유로존의 재정 위기, 유가 급등, 중국의 경기 경착륙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세 가지 주요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전망은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시장과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유로존의 경기 후퇴가 끝나면서 2013년과 2014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국가 및 지역별 동향

#### 미국

지난 1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보다 훨씬 나은 수준을 보이는 등 최근 경제 성장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중 주된 불확실성은 “재정 벼랑 끝(fiscal cliff)”으로 불리는 재정 적자 문제이다.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에너지원으로 인한 “긍정적 측면의 공급 충격”으로 중장기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11년 4/4분기 GDP 성장률은 2.8%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1년 4분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1년 평균 GDP 성장률은 1.7%였으며, 2012년 GDP 성장률은 2.1%로 전망된다. 높은 수준의 부채와 많은 양의 주택 공급이 미국 내 경제 성장을 일부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EU

최근 조사에 따르면 EU의 경제가 2011년 4/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한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1년 3/4분기 대비 4/4분기 GDP 감소율은 독일 0.2%, 스페인 0.3%, 이탈리아 0.7%, 네덜란드 0.7%, 그리고 포르투갈 1.3%이다. EU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의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산업과 소비자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투자, 고용, 소비자 지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1년 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시적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스페인의 경기후퇴와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이 특히 경기 후퇴에 비교적 많은 타격을 받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도 경기 후퇴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 신흥 시장

2012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먼저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사하라 이남 지역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성장률도 높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유로존의 경기 후퇴가 부각되면서 수출과 신용경로<sup>3)</sup>를 통한 유럽 신흥시장의 성장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 브라질과 인도 등 몇몇 국가의 중앙은행은 통화 긴축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이자율을 상향조정 하였고, 그 결과 경제 성장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이 신흥 시장에 대한 예측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 국제 원유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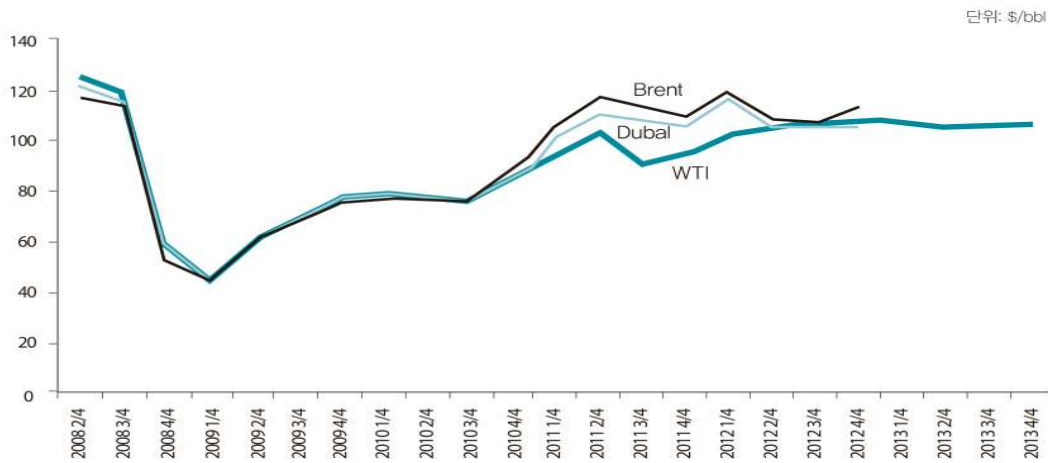
세계 원유가격은 세계 경제회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3) 통화정책이 은행대출에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을 말함(credit channel).

과 서방국가들과의 핵협상 재개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중동 원유공급 불안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해유전 원유생산 감소 우려로 지난달에 이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3월 WTI(텍사스 중질유) 가격은 전년대비 2.4%, 전월대비 3.1% 상승한 배럴당 105.4달러를 기록하였다.

대부분 기관들은 2012년 평균 유가가 2011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EIA(미국 에너지정보청)는 2012년 WTI의 평균 유가가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EIA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산유국의 정정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유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세계 경기회복 둔화 및 유럽재정위기 등 석유 수요 하향 리스크도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IA는 2013년 WTI 유가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3. 세계 원유 가격 동향 및 전망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미국 에너지정보청(WTI 전망치), 석유산업연구소(Brent 전망치),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Dubai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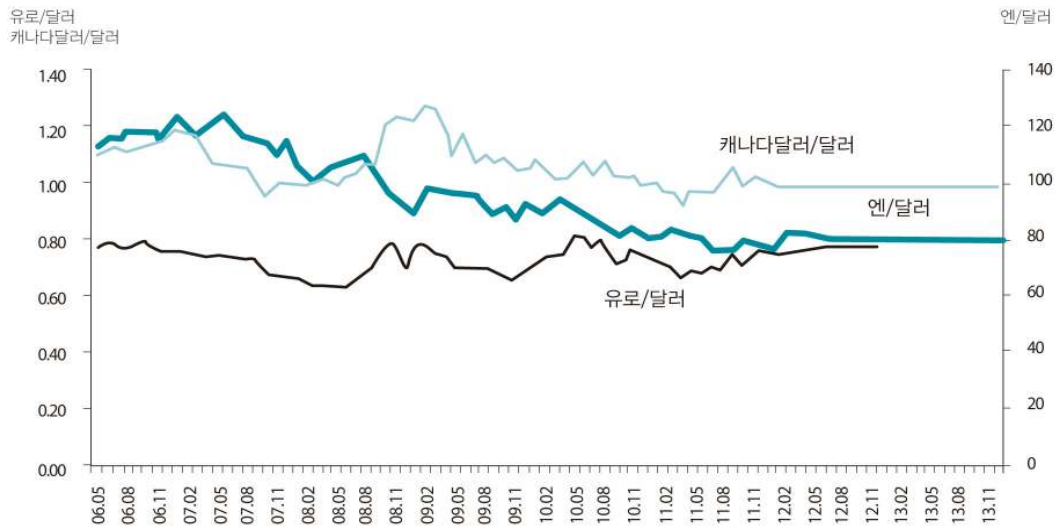
### 환율

2012년 3월 유로/달러는 0.75로 전월대비 0.6% 상승하였고 엔/달러는 82.28로 전월대비 2.0% 상승하였다. 지난해 주요 통화(유로, 엔 등) 대비 달러화 가치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미국 달러화는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로화의 경우 유로존의 국가재정위기가 해결될 것인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유로화 가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신흥 시장의 통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흥시장이 여전히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이자율이 선진국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그림 4. 유로/달러 및 엔/달러 환율



자료: Global Insight